



오늘의 성장이

송대원
(주)미디어로그 대표이사
(전기공학과 91학번)

특별한 목표 없이 캠퍼스를 거닐던 평범한 공대생은 어느 날,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공을 제대로 파고들어 전문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은 연구실과 산업 현장,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한민국 ICT·통신 기술의 최전선으로 이어졌다.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인 기술 리더에서, 이제는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표이사로, 국립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91학번 송대원 (주)미디어로그 대표이사의 30년을 관통하는 질문은 늘 한결같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가.'

평범한 공대생, 자신의 길을 찾다

1991년 입학한 그의 대학 생활이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다. 1학년 때는 공대 5호관에서 수업을 듣고, 틈이 나면 봉림관으로 향해 서예 동아리 '묵향회' 활동을 즐겼다. 변화의 변곡점은 2학년 때 찾아왔다. 카투사 입대를 준비하며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에 몰두하던 중, 동기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알게 된 것이다.

“이 기회에 영어 공부에서 벗어나, 제 전공 분야를 제대로 파고들어 전문 엔지니어가 되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자 대학 생활도 달라졌다. 전공 수업을 통해 관심 분야를 좁혀갔고, 3학년부서는 일찌감치 공대 5호관 전력전자 실험실에 들어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박승규 교수의 지도 아래 ‘자동제어’를 깊이 있게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아나갔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천 감각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 시절 그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전공 지식뿐만이 아니었다. 낯선 과제 앞에서도 기어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한 분야를 끝까지 파고드는 ‘꾸준함’이었다.

연구실에서의 땀방울, 기술 혁신의 밑바탕이 되다

대학에서 단단하게 다진 역량은 산업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석사 학위 취득 후 대우중공업 자동차 사업본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2003년 미국 플로리다공대 유학을 거쳐 2008년 LG유플러스 기술연구원에 입사했다. 이후 2025년까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구글 IPTV 셋톱’, ‘LTE 생방송’, ‘홀로그램 AI 스피커’, ‘5G AR 글래스’ 등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 최초의 고객 가치 서비스들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그는 이 모든 혁신의 밑바탕에 대학 시절의 배움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

실험실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3학년부터 대학원까지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온 꾸준함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현재 국립창원대학교를 이끄는 박민원 총장과 실험실에서 동고동락했던 일화도 빼놓을 수 없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앞두고 두 사람은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훗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졸업생이 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시절의 다짐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모교를 향한 든든한 애정으로 남아 있다.

지금의 위치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성장

엔지니어에서 기술개발그룹장(CTO)을 거쳐 최고경영자에 오르기까지. 역할과 책임의 무게는 끊임없이 달라졌지만, 그가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은 확고하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도전해야 하고, 도전을 통한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그가 이끄는 (주)미디어로그는 모바일 알뜰폰 및 중고폰 사업과 LG유플러스의 미디어·ICT 서비스를 아우르는 전문기업이다. 경영자로서 그는 비대면 셀프서비스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한다. AI Agent를 활용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설계하고, 쓴 만큼만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청년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를 바라보는 그의 철학은 조직 운영 방식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AI를 개발자들의 전유물로 두지 않고, 기획자와 디자이너, 사업조직 구성원 모두가 직접 실무에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실제로 전 직원이 AI를 업무에 접목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도 속속 도출되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AI 시대를 맞이할 후배들에게도 “막연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전공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고 직접 관련 도구를 다뤄보는 경험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를 정의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

급변하는 산업 현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오랜 시간 기술 조직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 온 송 대표는 주저 없이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을 꼽는다. 학교 수업과 달리 실무 현장에서는 정답이 없는 낯선 문제들이 수시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구조화해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마무리하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AI 활용 역량을 실제 과제를 통해 미리 훈련해 보라고 권한다. 아울러 조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는 ‘태도’를 언급했다.

“배우려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기술과 조직을 이끌어온 리더의 통찰이 담겨 있다.

후배의 내일을 밝히는 선배의 자리

졸업 후 모교를 찾을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캠퍼스의 모습에 놀란다는 송대원 대표. 최근 국립창원대학교가 창원캠퍼스를 넘어 4개 캠퍼스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롤모델 대학이 된 것 같아 더없이 뿌듯하다”며 미소 지었다. 그가 생각하는 동문의 역할도 분명하다. 창원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후배들과 나누는 것이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다짐했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졸업생’이라는 그의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꾸준함의 힘을 강조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한다고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루하루 준비하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장한 미래의 나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공대생에서 엔지니어와 기술 리더를 거쳐 경영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쌓아 올린 성실한 하루하루가 지금의 송 대표를 만들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보다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가 걸어온 길은 후배들에게 그 질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mediaLog